

보도 일시	2021. 12. 30.(목) 09:00	배포 일시	2021. 12. 30.(목) 09:00
담당 부서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책임자	과장 박병규 (044-203-3334)
		담당자	사무관 황진영 (02-2125-3501)

경제협력개발기구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 “한국은 문화 수출 선두 국가”

- 코리아넷과의 인터뷰에서 한류와 코로나 대응 한국 경제 정책 등 분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은 “한류가 아시아와 그 너머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켜 한국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대중문화 수출의 선두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 이하 해문홍(KOCIS)]이 운영하는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은 지난 12월 17일(금) 코먼 사무총장과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영상은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9개 언어(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한국 관련 뉴스 등을 제공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에 대해 “한류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문화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 수출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11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1990년대 후반의 약 2억 달러에서 50배 증가한 것”이라며, “디지털화와 세계화를 등에 업은 한류 열풍은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와 명성을 높여 관광, 패션, 화장품 산업 등 관련 분야의 수출 증대를 가져왔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라고 평가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코로나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했다. 한국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경제 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큰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의 회복력은 코로나 위기의 효과적 관리, 대규모 재정 정책, 적극적인 통화정책, 지속적인 수출 호조를 뒷받침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제조업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공공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에 타격받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이 지원은 대상을 잘 정해야 하고 직업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공공 투자는 경제를 친환경화하고 기회를 더욱 평등하게 하도록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뉴딜 2.0은 정확히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재정 투자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려 2025년까지 사회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와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로 가입 25년을 맞이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은 25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더 강한 국가로 거듭났고 최고 수준의 경제 선진국이 됐다. 한국은 지난 25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매우 중요한 회원국으로 자리매김해 왔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과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건전한 정책과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 인권, 법치,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운영이 경제적 번영과 더 나은 기회,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해문홍 개원 50주년 축하 인사와 함께 코리아넷 기자들과 그들의 기사를 보고, 듣고, 읽는 전 세계 코리아넷 독자들의 밝은 미래와 행운을 기원했다.

벨기에 태생인 코먼 사무총장은 20대에 호주로 이민을 간 이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역대 최장수 호주 재무장관을 지냈고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집권당인 자유당 소속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6월 1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장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임기는 5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붙임 1.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 사진

2. 인터뷰 전문(국문)

3. 인터뷰 전문(영문)



붙임 1.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 사진



붙임 2. 인터뷰 전문(국문)

- 2021년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25년이 되는 해이다. 25년간 한국의 활동을 평가해 달라.

한국은 25년 전 OECD에 가입한 이후, 더 강한 국가로 거듭났고 최고 수준의 경제 선진국이 됐다. 한국은 국제 경쟁력이 높은 제조업과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탁월한 성과를 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은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약 12년간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그리고 지금은 100년에 한 번 올 법한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연구·개발 심화도, 대학 졸업률, 기술 분야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기업 숫자 등 여러 부문에서 OECD를 선도해왔다. 한국은 위치 및 증상 추적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등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왔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완전 봉쇄를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비교적 잘 막을 수 있었고 이는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 국제학업성취도(PISA)에서도 한국은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15세 학생들 가운데 거의 세 명 중 한 명이 가장 높은 수학 수준에 도달했고,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국가이며, 그중 많은 부분을 민간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5년 동안 OECD의 매우 중요한 회원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한국은 혁신적인 사고, 지식,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OECD는 한국과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왔다. 한국은 OECD 거버넌스 과정 전반에서 선도국이자 적극적인 기여국의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2009년 한국은 연례 각료이사회 의장으로, 2021년에 다시 부의장으로서 기여했다. 한국은 공공부문 혁신, 경쟁 녹색성장 등의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개혁 경험을 공유했다.

예를 들어 2009년 한국의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OECD 자체의 녹색성장 전략 개발을 촉진시킨 부양책이었고, 2015년 한국은 파리 이외의 지역에서 처음 열린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제6회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포럼이 한국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2019년 인공지능에 관한 OECD 원칙 채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OECD의 영향력을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불과 1년 만에 OECD는 보건사회 정책 경쟁, 국제 조세, 공공 거버넌스 분야에서 아태 지역 파트너들과 우수사례 및 중요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거점으로 OECD 한국 정책센터를 설립했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세계 발전과 포용적 성장 의제의 원동력이 됐다. 글로벌 발전과 담론,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반영해 불과 1년 만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은 또 OECD의 동남아 지역 계획의 공동 의장국으로서뿐만 아니라 아시아로 더 강력한 다리를 놓으려는 OECD의 충실한 지지국으로서 태국과 함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은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해당 목표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원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포함됐다.

OECD와 한국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공동의 목표, 공동의 가치관과 노력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일궈낸 빛나는 사례다. OECD는 앞으로 양쪽의 파트너십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 25년 동안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달라졌다. OECD에서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은 건전한 정책,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 인권, 법치 그리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운영이 경제적 번영과 더 나은 기회,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줬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 재건은 세계 각국에 영감을 주었다. 한국은 저소득 개발 도상국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자 7위의 수출국으로 탈바꿈했다. 한국은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며 민첩하게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지속적인 성공과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경제와 사회의 강하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 균형 뉴딜이 결합한 업그레이드된 한국 뉴딜 2.0 이니셔티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고용 강화와 사회 안전망을 더 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은 2018년 OECD 동남아시아지역계획의 공동대표가 된 이후 동남아 국가들이 OECD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교로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고, 경제 정책 추진과 지역 통합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OECD 활동과 영향력이 동남아시아 파트너들과 비회원국으로 확장되도록 일조했다. 2010년 의장 재임 기간에 APEC은 물론 OECD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유엔(UN), 주요 20개국(G20)과 같은 다자회의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다른 지역에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 촉진을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다. OECD는 이러한 협력 관계가 더 깊어져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가교로서 한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 OECD는 12월 1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4.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전망에서는 "한국 경제는 신속한 백신 접종에 따른 거리 두기 완화와 수출·투자 호조세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한국 경제 정책은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코로나19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처음 시작된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장을 이룬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의 경제 회복력은 코로나 위기의 효과적 관리, 대규모 재정 정책, 적극적인 통화 정책, 지속적인 수출 호조를 뒷받침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제조업 덕분이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먼저 받은 OECD 국가 중 하나임에도,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코로나 검사 및 추적 시스템, 훌륭한 국가 의료 보험 시스템, 주요 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빠르게 활성화했다. 한국의 백신 2차 접종률은 12월 초 기준 81%에 이른다. OECD 평균인 68%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이렇다 보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내수 차질을 줄일 수 있었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 계획뿐만 아니라 현금 구제를 포함한 강력한 재정 프로그램을 실시해 내수를 지탱했다. 한국의 재정 대응은 2020년 GDP의 약 0.7%, 2021년 GDP의 약 2.6%로 추정된다.

통화 측면에서는 2020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한 한국은행의 대처가 은행, 기업,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러한 경제 정책 외에도 경쟁력 높은 제조업은 한국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한국은 반도체, 기계, 석유화학에 대한 높은 외부 수요 덕분에 견고한 수출 성장을 이뤘다. 한국 수출은 2020년 말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가장 최근 수치에는 수출이 전년 대비 32% 급증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에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강력한 수출 성장에 의해 주도됐으며 기업 투자와 공공 지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2021년 4% 반등 이후 실질 GDP는 내년에 3%, 그 후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조치의 점진적인 완화와 재정 지원 정책은 민간 소비와 고용, 특히 서비스업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뉴딜 2.0 계획과 더불어 더 나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과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기후 변화 해결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에 타격받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원은 대상을 잘 정해야 하고 직업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국가 및 세계적 위기로 인한 위험을 총체적으로 보고 정책들이 목적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공공 투자는 특히 경제를 친환경화하고 기회를 더욱 평등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뉴딜 2.0은 정확히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재정 투자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려, 2025년까지 사회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60만 개 이상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해당 정책들은 결실을 볼 것이다. 이미 올해 ICT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작년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기회가 있고, 더불어 할 일도 많다. OECD는 한국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마다 한국을 지원할 것이다.

- 영화 '기생충'에 이어 올해는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경제 전문가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류의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경제와 우수한 제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류가 아시아와 그 너머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확산시켜 한국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대중문화 수출의 선두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류가 가진 경제적 가치는 문화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매길 수 있다. 한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 수출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11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1990년대 후반의 약 2억 달러에서 50배 증가한 것이다. 디지털화와 세계화를 등에 업은 한류 열풍은 아름다운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와 명성을 높여 관광, 패션, 화장품 산업 등 관련 분야의 수출 증대를 가져왔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2010년대에 두 배로 늘었고, 2019년에는 1800만 명에 이르렀다. 한류로 인한 화장품 수출은 2010년 7억 달러에서 2020년 74억 달러로 최근 10년 사이 10배 증가해 시장점유율 세계 3위를 기록했다. 한류는 일자리도 창출했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 산업의 전체 종사자 수가 2005년 57만 명에서 2017년 64만 명으로 증가했고 현재 전체 고용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 수출은 여전히 한국 전체 수출의 2%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류는 경제 전반에 상당한 수익 창출을 가져오고 있다.

- 전 세계 코리아넷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코리아넷 독자분들께 해외문화홍보원 개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코리아넷 기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기사를 보고, 듣고, 읽는 모든 분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고 행운을 빈다.

붙임 3. 인터뷰 전문(영문)

- How would you assess the country's activities as a member state?

Since entering the OECD 25 years ago, Korea has gone from strength to strength, and it's been a top performing economy. Korea has done an exceptionally good job in developing an internationally highly competitive manufacturing industry and also a world class ICT sector, and it hasn't been all plain sailing along the way. I mean, over the past 25 years, Korea had to overcome numerous challenges and the Asian financial crisis back in 1997,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bout 12 years ago. And of course, now the COVID pandemic, one in a 100-year event.

Korea has led the OECD on several fronts,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intensity to university graduation rates to the number of high-tech firms operating at the technology frontier. And Korea responded very quickly and very effectively to the pandemic, for example, containing the spread of COVID-19 by using digital tools such as location and symptom tracking. That has enabled Korea to keep the virus at bay relatively well without a total lockdown, which significantly helped limit the economic harm. Korea also remains one of the top performers in PISA. Almost one in three of Korea's 15-year-old students reached the highest level in mathematics. That is the greatest share among all OECD countries.

And Korea also has one of the highest rates of spending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world and much of it from private firms. Korea is and has been an invaluable member of the OECD over the past 25 years. It brings innovative thinking, knowledge and diversity. Our partnership with Korea over the past 25 years has really gone from strength to strength. Korea has been a leader and an active contributor across the OECD governance processes. For example, as chair of our annual Ministerial Council meeting in 2009 and again as vice chair in 2021. And Korea has contributed its rich reform experiences in areas such as public sect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green growth.

For example, Korea's 2009 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was the pump prim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OECD's own green growth strategy, and in 2015, Korea hosted the meeting of the OECD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at the ministerial level, the first ever such meeting held outside Paris. And in 2018, the sixth 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was also held in Korea. And Korea has played a key role in the adoption of the OECD Princip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2019 and further extended the impact of the OECD to developing countries.

Just a year after Korea joined the OECD, we established the OECD Korea Policy Center, a hub for sharing best practices and valuable policy experience with partner economies across the Asia Pacific, in the areas of health and social policy competition, international taxation and public governance. The Korea has become a driving force behind the global development and inclusive growth agendas, join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in 2010. Korea hosted the Busan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just one year after reflecting its important role in the global development, discourse and community.

Korea has also been a stalwart supporter of our efforts to build a stronger bridge to Asia, not least as the co-chair of our Southeast Asia Regional Program. Together with Thailand. And Korea is continuing to pave the way in an effort to fight climate change, Korea recently set a new goal to cut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by up to 40 % by the year 2030, and this includes an aspiration to reduce the country's reliance on coal fired power plants and to exp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The OECD Korea relationship is a shining example of what can be achieved on the strong foundation of mutual trust, common goals, shared values and hard work. We look forward to further enriching our partnership and cooperation in the years ahead.

- What role does the OECD expect from Korea given the country's higher global status?

Korea provides a powerful demonstration of how sound policies, a commitment to democracy, human rights, the rule of law and operating within a rules-based global trading system can lead to economic

prosperity, better opportunity and increased living standards and generally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life. The Korea's economic reconstruction,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has been a source of inspiration for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Korea transformed itself from a low-income developing economy and into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and the seventh largest exporter. And Korea is not resting on its laurels, either, the hunger for further endeavors leading to continued success and achievements continues on the back of Korea's agility and its willingness to pursue innovative policy responses swiftly.

Korea can help steer future growth initiatives towards strong, resili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society. This approach is very much captured in the upgraded Korea New Deal 2.0 initiatives, which combines a Digital New Deal, a Green New Deal, a Human New Deal and a Local New Deal focusing on strengthening employment and a social safety net to build forward in a better, stronger way. Since becoming the co-chair of the OECD Southeast Asia Regional Program in 2018, Korea has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as a critical bridge to bring Southeast Asian countries closer to our organization, supporting their economic policy initiatives and regional integration efforts.

Through its leadership role in the OECD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y Policy, Korea has helped extend the reach and impact of the OECD work to Southeast Asian partners and nonmembers. Korea has also been leading efforts to promote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beyond through international forum such as the UN, the G20, including during its presidency in 2010, APEC, as well as, of course, through our own OECD South-East Asia regional program. We very much look forward to deepening this collaboration further into Korea's continued and active role as a critical bridge to Asia.

- How do you assess Korea's economic policy in the pandemic era?

Korea's economic policies during the pandemic have been appropriate and highly effective. They've helped limit the negative impact on the economy of the pandemic as a result of its swift and effective measures. Korea's growth has been one of the strongest across OECD countries since the pandemic first hit us. Korea's relative economic resilience can be attributed to effective management of the pandemic, a sizable fiscal response, supportive monetary policy and an internationally highly competitive manufacturing sector underpinning continued strong export performance.

Despite being one of the first OECD countries to be impacted by the pandemic, Korea quickly activated a test track and trace system supported by people's trust, a well-function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effective collaboration among key institutions. Also, Korea's second dose vaccination rate reached 81 % as of early December. Well above the OECD average of 68 %. As a result, disruptions to domestic demand have been more limited than in other places. Korea launched potent fiscal programs, including cash relief as well as job creation and retention schemes, which sustained domestic demand. The fiscal response is estimated at around 0.7 % of GDP in 2020 and 2.6 % of GDP in 2021.

And on the monetary side, the Bank of Korea reduced its policy rate to a record low 0.5% by May 2020, which helped ease the liquidity constraints of banks, businesses and households. And in addition to these economic policies, Korea's highly competitive manufacturing industry contributed to economic resilience. Korea managed to achieve solid export growth through the pandemic with high external demand for semiconductors, machinery and petrochemicals. Korean exports already recovered to pre-crisis levels by late 2020. The latest reading this year saw exports soaring 32% compared to a year earlier, the ninth straight months of double-digit expansion.

- What do you think of Korea's expansionary fiscal policy amid COVID-19 and what is the government's proper role for a safe return to "normal life" after the pandemic?

The global pandemic had a profound social and economic impact on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The Korean economy continues to recover strongly following the COVID-19 shock. It is being propelled forward by strong export growth, which has helped drive improve business investment and public support. After a 4 % rebound in 2021, real GDP is projected to grow by 3 % next year and 2.7 % a year after. The gradual relaxation of distancing measures and supportive fiscal policy will further boost

private consumption and employment, notably in the service sector.

Relatively low public debt leaves room for continued fiscal support. But prioritizing spending will be important given the need to address Korea's aging population as well as climate change, as well as making sure that there's better equality of opportunity in line with Korea's New Deal 2.0 initiatives. For this fiscal support to households and companies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pandemic should remain in place until the economy has fully recovered.

However, it should become more targeted and help facilitate job transitions. Governments should take a holistic view of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or global crisis and ensure and policies remain fit for purpose. And as the economy continues to recover, public investment should be focused on a way forward, such as even further accelerat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particular for smaller and medium sized businesses on greening the economy and on improving equality of opportunity. The upgraded Korean New Deal 2.0 is seeking to do precisely that.

With its aim to increase fiscal investment from KRW 160 trillion to KRW 220 trillion and to create over 600,000 extra jobs in addition to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cluding programs to help bridge the social and education gap by 2025. These policies will bear fruit in the coming years, but a 23 % increase in exports of ICT goods and services is already expected this year relative to last year. There's much opportunity, there's much to do. And of course, the OECD will continue to work with Korea for Korea and support Korea every step of the way.

- As an economic expert, what do you think of the value of booming Korean content called Hallyu (Korean Wave)?

Korea has long been known for its dynamic and creative economy and manufacturing prowess. And there's no doubt that the Hallyu has catapulted Korea onto the global stage, projecting Korea's growing soft power across the Asia and Asian region and beyond. To this day, Korea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exporters of popular culture. This has been a clear positive for the Korean economy as well.

The economic value of the Korean wave can be assessed by direct impacts on cultural exports and indirect ripple effects across the economy. With the rapid diffusion of Korean wave, cultural export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than doubling from USD 5 billion in 2016 to USD 11 billion in 2020. This is a 50-fold increase from around USD 0.2 billion in the late 1990s. The Korean wave backed by digitalization and globalization likely boosted the exports of related sectors such as tourism, fashion and cosmetic industries by enhancing the image and reputation of Korea as a beautiful country.

Indeed, the number of tourists visiting Korea doubled during the 2010s, reaching 18 million by 2019. Cosmetic exports owing to the Korean wave increased 10-fold in the last 10 years, from USD 0.7 billion in 2010 to USD 7.4 billion in 2020, ranking third worldwide in terms of market share. The Korean wave also created jobs, for instance, the overall number of employees in the Korean cultural industries increased from 570,000 in 2005 to 640,000 in 2017. Now accounting for around 3 % of total employment.

Having said all of that, we must also be careful not to over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the Korean wave, since cultural exports still account for less than 2% of Korea's total exports, despite the rapid increase. But it is delivering significant onflow benefits into other parts of the economy as well.

- Any final message for Korea.net's readers worldwide?

A very warm congratulations to Korea.net audiences in Korea and worldwide on the 5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My very best wishes for a strong and successful future to Korea.net and to all those who watch, listen to and read your material. Best wishes.